

고지혈증 신환자의 의료이용 행태 :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중심으로

송현종, 신숙연, 장선미, 성예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지혈증은 심혈관계질환의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고혈압, 당뇨 등에 비하여 관심이 덜 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국가 차원에서의 고지혈증 관리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고지혈증 환자의 의료이용행태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건강보험청구자료를 이용하여 고지혈증 신환자의 의료이용행태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이용하여 2005년에 처음으로 고지혈증으로 의료이용을 한 만 18세 이상 성인 고지혈증 신환자를 코호트로 하는 후향적 코호트 연구이다. 우리나라의 고지혈증 치료제의 급여기준이 총 콜레스테롤 250mg/dl로 외국과 다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고지혈증 신환자는 2005년 처음으로 지질저하제를 처방받은 환자와 고지혈증 진단명으로 의료이용을 한 환자로 정의하였다.

의료이용은 지질저하제를 처방, 지질검사, 추구관찰을 모두 포함하였다. 또한 고지혈증은 주로 외래에서 치료하며 입원의 경우 그 시사점이 다르다고 판단하여 외래 이용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심혈관계질환의 기왕력에 따라 1차 예방군과 2차 예방군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고, Charlson's Comorbidity Index를 사용하여 동반질환을 보정하였다.

2005년도에 새롭게 지질저하제를 처방받은 고지혈증 신환자(57,081명) 중 58.3%만이 지속적으로 의료이용을 하였으며 41.7%는 투약 후 2개월까지는 의료이용을 하다가 그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의료이용을 하지 않았다. 전체 분석 대상자는 추적 기간 3년 동안 평균 1.84개 기관에서 외래이용을 하였으며 24.8%(19,562명)가 지속적으로 동일한 의료기관을 이용하였다. 심혈관계 질환 위험도가 높다고 알려진 45세 이상 남자, 55세 이상 여자, 2차 예방군이 45세 미만 남자, 55세 미만 여자, 1차 예방군보다 이용기관 수가 많았다. 처음 2개월 동안 의원을 주로 이용한 환자는 60.7%이었고, 상급종합병원을 주로 이용한 환자는 14%, 종합병원은 18%이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급종합

병원이나 종합병원을 주로 이용하는 비율이 증가하였다. 지질저하제를 처방받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외래이용을 한 고지혈증 신환자 중에서 지질저하제를 처방받은 2개월 이내에 지질검사를 받은 환자는 79.4%였다. 지질저하제를 처음 처방받은지 1년에서 2년 사이에는 76.7%의 신환자가 추구검사를 받았으나 2년에서 3년 사이에는 이러한 비율이 54.4%로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지질저하제를 처방받지는 않았으나 2005년도에 고지혈증 진단명으로 새롭게 의료이용을 한 신환자 21,745명 중 외래의료이용을 지속한 환자는 24.3%에 불과하였고, 75.7%는 첫 번째 해에만 의료이용을 하고 그 이후에는 하지 않아서 의료이용 지속률은 매우 낮았다. 추적기간 3년 동안 이용한 기관 수는 1.64개이었으며 34.5%(1,818명)은 동일한 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였다. 첫 번째 해에 외래 의료이용을 한 21,745명 중 92.5%가 추구검사를 받았으며, 두 번째 해에 외래 의료이용을 한 9,751명 중에서는 90.1%가, 세 번째 해에 외래 의료이용을 한 7,351명 중에서는 79.7%가 추구검사를 받았다. 세 번째 해에는 급격하게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